



온 세상을 위한 한 메시아

2021년 10월 17일 설교
누가복음 4:17-30

설교 소개

이번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선교와 사역에 관한 2 주간의 시리즈 중 2 부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성경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십시오.

누가복음 4:17-30

17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그에게 주셨더라 그가 두루마리를 펴서 그것이 기록된 곳을 발견하고,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
19 이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20 그리고 그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에게 돌려주고 앉았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성경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2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들이 ”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23 이르시되 의사야 네 병을 낫게 하라 하는 속담을 너희가 내게 말하리니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여기에서도 너희 고향에서 행하라 하였느니라 ”
24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용납되지 아니하느니라
25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삼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더니
26 엘리야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더라
27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문둥이가 많았더니 그 중에 깨끗함을 받은 자가 없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던라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노하여
29 그들이 일어나서 그를 성밖으로 몰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건설된 산 벵랑까지 끌어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30 그러나 그분은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시며 가셨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40 장 8 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 우리는 17-21 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당신에게 그것들을 읽어 주어 당신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22 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 1: 요셉의 아들 예수(눅 4:22-24)

포인트 2: 예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이시다(눅 4:25-27)

포인트 3: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죽으심(눅 4:28-30)

포인트 1: 요셉의 아들 예수(눅 4:22-24)

22 절: 모든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들이 ”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을 자세히 보면 그가 말하는 방식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그가 말한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창한 랍비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알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약 30 세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가 어렸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24 절:

23 이르시되 의사야 네 병을 낫게 하라 하는 속담을 너희가 내게 말하리니 너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여기에서도 너희 고향에서 행하라 하였느니라 ”

24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용납될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나사렛 근처의 도시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소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인간 이상이라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 그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아마 우리는 믿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도록 도우시는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랐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20년 전에 오셨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의 기적에 대한 비디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 증거조차도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과 믿음의 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라 애썼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불신으로 어두웠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2:38~40 —

38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유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술이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곳입니다.

니느웨는 앓수르 제국의 수도였으며 그곳에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고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나는 앓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거의 익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하기 위해 큰 물고기나 고래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3 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기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기적 대신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기적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머지않아 자신을 처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사흘 동안 땅에 묻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무고한 사람을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가?
그것이 죄인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수치스러운 처형을 기꺼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요나 3:1-5, 3:10, 4:1

1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외쳐라.”
3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너비가 사흘 길인 심히 큰 성읍이었던대라.
4 요나는 하루 길을 가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굶은 베옷을 입으니...
10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요나 4:1 요나가 심히 노하여 노하였더라

나는 요나에게 놀라고 실망했습니다.

요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죽음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니느웨에 자비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에 대해 화를 냈습니다!

왜요?

그가 인종차별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성경이 참되다고 믿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영웅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선지자들과 왕들과 영웅들에게서도 죄와 실패를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그와 그의 백성에게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앗수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4 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포인트 2: 예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입니다(눅 4:25-27)

25-26 절:

25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삼년 육 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더니

26 엘리야는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더라

엘리야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타국으로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과부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밖에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과부를 도운 후 열왕기상 17:24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된 줄 아노라.”

이 타국인 과부는 유일하신 참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군중들에게 그녀에 대해 상기시킨 후, 예수께서는 다음으로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상기시키셨습니다.

27 절: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더니 그 중에 깨끗함을 받은 자가 없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던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던 또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나아만은 도움과 치유를 받은 후 한 분이신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과 마음이 세상의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안전과 편안함을 매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커뮤니티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원을 그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제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적이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는 꽃 한 송이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맞죠?

그는 한 종류의 야채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꽃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물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다른 음식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여러 가지 빛깔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화, 언어, 관습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하나님의 가족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합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르밧과 시리아에서 온 외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모인 군중은 성경에서 말한 내용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3-5 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함께 봅시다.

3 아브람이 엎드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4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5 더 이상 당신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 많은 민족의 아버지”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적인 구원 계획은 우리 성경의 시작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 이야기를 하셔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임을 밝히셨습니다.

구주 예수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구조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킨 후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봅시다.

포인트 3: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죽으심(눅 4:28-30)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노하여

29 그들이 일어나서 그를 성밖으로 몰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건설된 산 벵랑까지 끌어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 하고

30 그러나 그분은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시며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모두를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는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21 절에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을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셨을 때 백성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도움을 보내시는 것에 대해 관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보내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논란이 많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강력하게 반응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본 것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에게 달려가거나 그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화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장 6 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그는 누가복음 5:31~32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1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니느웨 사람들처럼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완전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이 그를 죽이려던 그 날 나사렛에서 그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아버지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당신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구할 때, 그분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초대하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가 생각보다 더 깊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앗수르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의문을 품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현명하시고 더 환영하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환영하는 교회 가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 장 6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이 야곱의 지파를 회복하고 내가 지킨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구.”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문화와 민족과 언어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One Voice Fellowship** 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요나의 마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눈과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자비가 계속 필요합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저 주는 선물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문화나 국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신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